

# 정점 2~3주 남았지만...확 풀린 방역패스

### 유흥시설도 해제...청소년 방역패스 중단 출입국 음성확인서 민간 병원서 받아야

오미크론 대유행 정점이 이달 중순 즈음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일부터 방역패스 등 국내 코로나19 방역이 대폭 완화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확진자 동거 가족도 이날부터 격리 대신 출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대규모 행사·모임·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전날까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플라타·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감염취약시설도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의 입원자·입소자

면회 시 방역패스가 필요했으나 앞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와 감염취약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나 집회의 최대 허용 인원인 299인 기준은 유지된다.

오는 4월1일 도입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방역패스가 중단됨에 따라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더 이상 음성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방역패스 외 출입국 등의 목적으로 음성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민간의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영업시간·사적 모임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등 동거인 격리 기준도 바뀐다.

지금까지 확진자 동거인은 접촉 완료자는 수동감시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이었으나, 1일부터는 미접종자도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자가격리 의무 없이 출근이나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스스로 자율격



리를 할 수도 있다.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분류돼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되고'로 완화됐다. 확진자 가족들은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 이내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으면 된다.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는 변함 없이 격리 의무 대상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3종이다.

밀접 접촉자라면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삼가고 10일간 증상을 살펴봐야 한다. 처음 3일간은 외출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문서 형태였던 격리통지서도 이날부터 문자 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지로 일괄 변경된다.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방역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현실이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1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방역 완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유행 정점에 도달하기까지 1~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인 만큼 도달한 후 해제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빠르게 해제되는 측면이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천일 친미 세력 척'** 류규하 중구청장이 1일 오후 대구 중구 3·1만세운동길과 청라언덕 일원에서 열린 '제 103주년 3·1절 기념행사'에서 시민들과 태극기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나경원 사무실에 "뺏속까지 친일" 락카칠...2심서도 유죄

### 사무실 간판 등 락카로 낙서한 혐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항의 차원에서 락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공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동행해 휴대전화로 낙서하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2)씨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8일 서울 동작구 소재 나 전 원내대표의 사무실 출입구 및 건물 내부 벽면에 부착된 간판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칠하고, '우리 일본? 습관적 매국 뺏속까지 친일' 등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나 전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에서 일본과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민주사회의 시민은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건전한 비판을 할 표현이나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면서도 "그와 같은 한계를 초과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의 견해나 정책에 대해 건전한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범죄로 포섭될 수 있을 정도의 몰리력을 동원한 항의는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토론을 통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A씨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정은 있지만, 사전에 기자들에게 알려 취재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을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선욱기자

## “믿고 통장 맡겼는데”...80대 노인 전재산 빼돌린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남편은 피해자 여동생 폭행

자신이 돌보던 80대 여성의 통장에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80대 B씨의 통장에서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B씨는 2년을

넘게 자신을 돌봐준 A씨를 믿고 통장 관리를 맡겼다.

그러나 지난달 자신의 통장에서 돈이 모두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B씨의 여동생은 A씨 집에 찾아가다 A씨 남편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남편을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슬비기자

## “아빠가 드라마 국장” 4천만원 뜯어낸 30대...1심 실형 선고

### 징역 8개월 선고

자신의 아버지를 방송국 드라마 국장으로 소개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임민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17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00만원의 배상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 B씨

에게 '연예기획사 법인 설립'을 이유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와의 식사자리에서 A씨는 "내 아버지가 지상파 드라마 국장이고, 아버지 후배인 PD들과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며 "그 법인을 통해 너를 드라마에 출연시켜주고 너의 유튜브 활동도 도와줄 생각"이라고 그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세 차례에 걸쳐 A씨에게 총 4000만원을 송금했다.

최이슬기자



### 담양경찰, 농협과 안전한 담양군 만들기 간담회 개최

담양경찰서(서장 국승인)은 2월 24일 담양 농협 군지부 2층 소회의실에서 농협 군지부장 및 지역 조합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전남 만들기'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화순소방, 외국인 공사장 근로자 VR 가상현실 교육 실시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 현장 사고와 겨울철 공사장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VR 가상현실(시뮬레이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 무안소방, '현장에서 더 자신있게, 더 강하게' 훈련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화재대응 팀 단위 전술, 진압기법 및 인명구조기술 등에 대한 "현장대원 화재대응능력 강화 교육·훈련 성과측정"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담양소방,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해빙기, 야외활동 증가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부터 안전한 생활공간 제공과 맞춤형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오는 3월에서 5월까지 3개월간 봄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담양=박종영기자



### 광주 남부소방,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컨설팅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2월 24일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 완도해경, 해빙기 해양오염 대비 방제장비 점검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선저폐수 유출 등 해빙기 해양오염에 대비하고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방제장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